

# 겨울대파 가격 폭락...설 대목 ‘우울한 농심’

기후 변화·소비 위축 등 여파...전남 재배농가 산지 폐기 움직임 커져  
진도 물량 60% 이상 그대로 밭에...농협, 농가 피해 줄이려 폐기 요청  
진도군·전남도·농식품부, 처리비용 지원 눈치보기에 애타는 농민들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겨울대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남 지역 대파 재배 농가들 사이에서 기껏 키운 대파를 ‘산지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돼 물량이 남아돌고, 기후 변화로 중부권 이상 지역의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서 전남산 대파 소비가 직격탄을 맞은데다 가격마저 하락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농협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달부터 전남도에 대파 산지 폐기를 요청했지만, 정작 진도군과 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폐기 처리비용 지원 문제로 눈치만 보며 농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진도선진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달 말 겨울 대파를 산지 폐기할 수 있게 허가를 내려 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했다.

겨울 대파 가격 폭락으로 재배 및 판매를 해도 농가에 피해만 갈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파(1kg 기준) 가격은 2456원으로 전월(2027원)보다 21.2% 올랐지만, 평년 대비로는 14.6% 낮은 수준이다. 1월 하순 대파 평균 경락가격(1kg·상품 기준)은 1468원으로, 전년(1807원)보다 18.7%, 평

년(2322원)보다 36.7% 낮았다.

전남지역 대파 재배면적은 오히려 늘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전남 대파 재배면적은 2971ha로 전년(2331ha)보다 27.5% 증가했다. 신안이 1404ha로 가장 많고, 진도 1052ha, 영광 336ha, 해남 110ha 순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포전거래 비율이 예년 70% 이상이던 것과 달리 올해는 40% 수준에 그쳤다. 평당 포전 가격도 1만2000~1만7000원에서 현재 4000원대로 떨어졌다”며 “현재 물량의 60% 이상이 밭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가격 하락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와 소비 위축이 제기되고 있다.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중부권 이상 지방에서 기존 11월에서 12월까지 대파를 수확, 유통량이 많아져 남부지방 대파 반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외식 소비가 줄면서 판매 크게 감소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진도군 고군면에서 대파를 재배(9.92ha)하는 한승용(62)씨는 “기후 변화로 남부지방 대파 소비 기간이 짧아졌고, 팔수록 손해다”며 “중부권 수확 시기가 늦어지며 유통 물량이 늘었고, 경기 침체로 외식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진도군 앵무리의 한 대파 농가에서 작업자가 대파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에서 700ha 대파 농사를 짓는 김영화(67·진도군 지산면)씨는 팔지도 못하고, 수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신안 임자도에서 대파를 재배하는 김창욱(48)씨도 “겨레가 이뤄지지 않아 50~70% 물량이 밭에 남

아 있다”며 “산지 폐기가 절실하지만 신안에서는 아직 계획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남 각 시·군과 전남도, 농림부 등은 지금까지 산지 폐기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이와 관련, 산지 폐기를 하려면 폐기 발생 원가 대금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전남도는 농림부 눈치, 진도군은 전남도 눈치를 보면서 결정 시간만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농림부 입장에서는 설 대목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입장이자 당장 폐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파 가격이 더욱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시장에 나온 물량뿐 아니라, 앞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는 추가 대기 물량도 상당한 상황이라 향후 가격도 현재 수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전남 지역의 겨울대파 재배 면적 자체가 지난해보다 늘어 생산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그 영향으로 공급이 수요를 웃돌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며 “공급량 자체가 많다 보니, 지금 여건에서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인석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생산이 끝난 상황에서는 산지 폐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파종 단계부터 수급을 예측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민들의 산지폐기 요구와 관련,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산지 폐기뿐 아니라 소비 활성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판사의 일갈

“당신 딸이 그런 일 당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제자 강제추행 전남대 교수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피고인 따님이 있으십니까? 피고인이 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당했다면, 피고인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예술대학 A(55)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한 일갈(一喝)이다.

이날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는 A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A 교수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식당, 공원 등지에서 자신이 개인 지도하는 성악 전공 학생들의 피아노 반주자(제자) 2명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입을 맞추려 하고, 신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법정에서 “격려와 진폭 또는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추행 고의가 없으며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강제 추행이 된다”며 “교수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인가. 피해자들은 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그 피해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는가”라고 되물었다.

장 판사는 “자숙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오히려 무고 가해자로 몰아 2차 피해까지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A 교수에게 일말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하는 전례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 옥중 사망 후에야 누명 벗었다

진도 저수지 아내 살해 혐의 무기징역 받은 故 장동오씨 22년만 재심서 무죄

광주지법 해남지원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저수지에 차량을 빠뜨려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재심에서 2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성흠)는 11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동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진도군의 신진면 일대에서 1t화물차를 몰다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 혼자서만 헤엄쳐 빠져나와 동승한 아내 A(당시 4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8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장씨가 유죄라고 판단,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에 대한 재심은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장씨는 그 해 4월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급성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형 근거인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한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사고차량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며, 영장주의 예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의 큰언니 관련 경찰 진술조서도 원진술자가 사망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 장씨 주장대로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의 사고’로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사 측은 A씨의 위에서 캡슐 알약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장씨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심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추정한 범행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도 보완검정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장씨가 A씨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보험 가입 내역 등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심 재판부는 ‘부수적 사실’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 부부 갈등, 경제 형편 등을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선고 직후 장씨의 장녀 장모(여·45)씨는 “한동안은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진실인줄 알고 살고, 그 걸로 아빠를 미워하며 20년을 보냈다”며 “가장 기뻐하실 아빠가 여기 없다는 게 슬프지만 어디선가 같이 기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증언과 책임 있는 모습이 더해져 가지고 오늘과 같은 정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소시민들의 선한 연대의 힘이 크구나 느꼈다”며 “오늘 무죄 판결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장동원 선생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